

시민들의 관심 속에 「10만 명 산재예방 서명운동」 시작

취재 | 최종덕 기자

의정부 경전철 교각 붕괴사고로 13명 사상, 시화공단 폐기물공장에
서 질식으로 7명 사상, 경춘선 철도 터널공사 인부 3명 사망!

이는 8월 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산업재해이다. 우리나
라 산업재해 예방에 구멍이 뚫리듯 6월부터 대형 산업재해가 연신
보도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에서는 최근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
만 보도되는 것은 붕괴사고며 추락사고, 질식사 뿐, 이러한 추세라면
0.7%대의 재해율을 금년에 허물 수 있을까?

장담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금년 1/4분기 재해율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그 차이는 0.01%p로 극히 미비한 수준, 연
제 재해율이 급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이때 노동
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가 후원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한 “산업재해예방 줄이기 위한

서명 운동”이 서울 신도림역사에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에게 산업재해예방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가
정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금
년에 시행한 안전그림 및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품이 전시되었고, 시
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계몽 문구가 쓰여진 부채 그리고 전
자파차단 스티커와 안전계몽 전단지 2,000여장이 배포되었다.

산업재해예방에 냉랭한 시민들

캠페인이 진행되는 하루 동안 시민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산
업안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뜻 동참해주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재해예방에는 관심이 없는 듯 바삐 갈 길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산업재해예방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도 산업재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성인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어린 초등학생들은 산업재해의 의





신도림역 지하에서 전개하고 있는 안전그림 전시회



실외에서 가두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

미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산업안전문화 수준이라 생각하니 매번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신도림 역사를 오가는 사람이 끊임없이 지나 갔지만 산업재해에 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고작 300여명, 전단지들 내민 손이 부끄럽기가 수십 번, 싸늘한 시선은 캠페인 의지마저 얼어붙게 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냉랭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전망이 어둡다는 생각만 든다.

10만 명의 서명... 선진안전국의 불씨 될 터

그래도 안전그림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시민들, 전단지 내용을 통해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된 시민들, 서명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인식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안전 선진국의 밝은 빛을 보는 듯 했다.

안전의식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법, 시민의 안전의식 또한 이러한 공익행사가 지속된다면 분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식이 확산되고 안전문화 창출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확고해졌다.

오늘의 서명운동에 참석해준 시민들의 반응을 볼 때 앞으로 10만 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는 날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나 오늘 실시된 캠페인과 서명운동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씨앗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앞으로 10만 명이 참여하는 그날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안전그림 및 포스터 전시를 통한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11년 째 지속되고 있는 재해율 0.7%대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신도림역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명으로 시민들 참여